



# 2018년 일본 생명보험 가입 실태조사

박정희 선임연구원

연구

일본 생명보험 가입실태조사 결과 전체 생명보험 가입률은 88.7%로 2015년 대비 0.5%p 하락한 반면, 민영보험 가입률은 젊은층과 초고령층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함. 가입목적으로는 의료비 마련과 유족보장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장례비용과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민영보험의 주요채널인 영업직원의 판매비중은 감소한 반면 대리점의 판매는 확대되고 있음. 또한 4명 중 1명이 생명보험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일본 생명보험 가입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개인연금 포함) 가입률은 88.7%로 2015년 대비 0.5%p 하락한 반면, 민영보험 가입률은 0.5% 상승한 79.1%로 나타남<sup>2)</sup>

- 특히 29세 이하 젊은층의 가입률은 72.2%로 2009년 55.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70~80대 초고령층의 평균가입률도 68.9%로 확대되고 있음
- 가입 건수(개인연금 포함)는 전체 생명보험이 3.9건으로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0.1건 상승하였으며, 기관별로는 민영보험이 3.2건, 공제·생협 2.1건, JA 2.1건, 간이보험 1.8건으로 나타남<sup>3)</sup>
- 반면, 가구당 사망보험금은 평균 2,255만 엔으로 2009년 2,978만 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가구의 연간 납입보험료는 평균 38.2만 엔으로 이전 조사결과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1〉 일본 생명보험 기관별 가입 현황

구분	전체생명보험	민영생명보험	간이생명보험	JA	현민공제·생협 등
가입률(%)	88.7(89.2)	79.1(78.6)	11.5(13.4)	9.8(8.5)	28.4(28.4)
가입 건수(건)	3.9(3.8)	3.2(3.1)	1.8(1.8)	2.1(2.0)	2.1(2.0)
사망보험금(만 엔)	2,255(2,423)	2,079(2,335)	491(540)	1,867(1,773)	731(735)
연납보험료(만 엔)	38.2(38.5)	36.2(37.0)	22.8(22.2)	25.2(27.7)	7.7(8.2)

1) 공익재단법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9. 14), “平成30年度「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速報版)」”  
 2) 1965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일본 가정의 생명보험 가입상황 및 노후생활, 만일의 경우 생활보장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 조사이며, 조사지역은 전국, 조사대상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일반 가구 3,983세대를 대상으로 함  
 3) 간이생명보험은 2007년 10월 우정사업 민영화 이전에 가입한 간보 상품, JA는 일본 농협 상품, 생협 등은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노동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3기관의 상품임

- 최근 민영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주된 가입목적(복수응답)은 의료보장 및 유족보장이며, 장례비용 및 노후생활 자기에 대한 대비 목적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으로는 ‘의료비와 입원비를 마련하는 것(57.1%)’이 가장 많았고, ‘만일의 경우에 대한 가족의 생계보장(49.5%)’, ‘장례비용 마련(15.4%)’, ‘노후생활자금 준비(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늘리고 싶은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노후생활자금 준비(27.1%)’,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준비(25.1%)’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민영보험의 주요채널인 영업사원 비중은 53.7%로 2009년 68.1%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보험 대리점은 11.4%p 증가한 17.8%를 기록함
  - 응답자들이 보험가입 시 활용하는 채널로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53.7%), 보험대리점(17.8%), 통신 판매(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 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채널로는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46.5%), 보험대리점(15.8%), 지인 (10.3%)이나 가족·친척(9.9%) 등을 통해 제공받고 있음
  
- 조사대상자 4명 중 1명이 생명보험(개인연금 포함)의 향후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선하는 보장내용으로는 유족보장(22.0%), 의료보장(20.6%), 노후생활자금 준비(20.2%) 등을 선택함
  - 세대주의 사고 발생 시 유족보장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생활자금 규모는 5,558만 엔이며 연평균 필요금액은 327만 엔, 평균 필요 연수는 16.7년으로 응답함
    - 이는 가구당 평균 연수입의 9.2년치<sup>4)</sup>에 해당하는 금액임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필요생활자금 대비 일반사망보험금(전체 생명보험)의 비율<sup>5)</sup>은 25.3%로 나타남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요양간호 상태가 되었을 경우, 필요비용은 총 3,167만 엔이며, 공적개호보험 이외의 필요비용은 초기 242만 엔, 평균 월 필요금액은 16.6만 엔으로 나타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세대주가 취업불능이 된 경우, 가족의 생활비와 주택대출금 상환 등의 기금으로 매월 28.0만 엔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부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생각하는 평균월액은 60~64세 사이가 20.6만 엔, 65세 이상에서는 15.9만 엔이라고 응답함 **kiri**

4) 해당금액은 총액(연간필요금액×필요연수)/가구당 평균 연수입(세금포함)으로 총액은 5,558만 엔, 평균 연수입 604만 엔임  
 5) 사망보험금 총족비율=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필요생활자금/세대주 평균 가입 일반사망보험금